주민 40억원 특혜에도…곡성 폐기물처리장 설 곳 없다

군, 1차 후보지 모집 지원 없어 재공고…2차 공고도 실패시 직접 선정
처리장 주변 마을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 지원 등 기금 조성 혜택

곡성군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해 1차로 입지를 모집했으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결국 재공모하기로 했다.

곡성군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재모집한다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6만1000㎡ 부지의 소각장(1일 20t 처리 용량), 11만8000㎡의 매립시설, 자원회수센터(1일 13t 처리용량), 음식물류폐기물(1일 10t 처리용량)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마을에는 약 40억원 규모의 주민 편익 시설이 설치된다.

또 해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등을 주민 지원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다양한 주민 혜택을 제공함에도 1차 공고에 지원한 후보지가 없자, 곡성군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읍면 이장간담회를 진행하고 관심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곡성군은 현재 생활폐기물을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 사용 협약이 만료되면 더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곡성군은 재공고 이후에도 신청 지역이 없거나, 후보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으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 시설이다"며 "시설을 유치하면 마을 발전을 끌어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신규 시설 유치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광양시, 광양세무서 유치 잰걸음

지난달 행안부 이어 최근 국세청 방문 설득 나서

광양시가 국세청을 방문해 '광양세무서'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하는 등 광양세무서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광양시는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 광양항과 세계적인 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라권 제1의 경제도시로 도시 개발과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체 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전국 어느 곳보다 국세 수요가 높다. 지난해 광양지역 세수는 4304억원으로 순천세무서 본서 4667억원에 육박하며 향후 증가추세가 이어져 본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세무서 유치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공약사항으로 6개 기관단체와 '광양세무서 설치 공동건의문'을 행안부에 전달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치활동을 펼쳤으나 정부 조직 축소 정책 기조에 따라 2023년 전국적으로 한 곳도 세무서를 신설하지 못하게 됐다.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이 지난 달 행안부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국세청을 방문해 광양세무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광양세무서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향후 세무서 신설 계획에 광양세무서가 먼저 포함되도록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나섰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 신품종 배 '조이스킨' 느낌 좋다

전시·품평회 열려…당도 높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 호응

구례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례 영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 신품종 성과 평가회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회는 2017년부터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를 시작해 올해 첫 수확한 신품종 '조이스킨' 배 전시·품평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됐다. 〈사진〉

구례 영배 영농조합법인은 신품종 도입에 따른 전문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에게 배 과원관리 등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여섯 차례 받았다.

신품종인 조이스킨의 성숙기는 9월 상순이며 과중은 320g, 당도는 15.2브릭스로 높다. 조이스킨은 껍질째 먹을 수 있어 벌써부터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례 영배 영농조합법인 남강현 대표는 "조이스킨 배 육성으로 신품종 소비시장 선점과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순천시, 수강생 모집

22~23일 30명 선착순

순천시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22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선착순이며 순천시 정원산업과의 정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을 우선 선발한다. 순천만국가정원 누리집 '정원교육 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10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10주간 총 30시간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정원에 대해 기초가 없는 시민 누구라도 수강이 가능한 입문반 과정으로 정원사로서 기본을 다지는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과정은 정원의 역사와 종류, 정원식물 번식 및 전정 등의 이론 습득과 씨앗뿌리기, 화단조성 등의 실습으로 진행되며 정원과 관련된 8시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가꾸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말 달리자'

말산업 육성사업 선정 10억 확보…부가가치 창출 기대

고흥군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23년 말산업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말산업육성 지원 사업은 국산마 유통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 생산 농가의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저변 확대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연관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7월 마사회 현장평가단 현장 실사와 8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심사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 6일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에 팔영산 승마장〈사진〉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년 간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1년 차 2억원, 2년 차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에어돔(실내 운동장) 3200㎡, 마방 600㎡, 편의시설, 교육장 등 농어촌형 승마시설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말산업은 FTA시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체험·관광까지 아우를 수 있는 6차 산업과 접목이 가능하다"며 "말산업을 적극 육성해 군민 여가문화 조성과 연관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여수시 공직문화 MZ 세대가 바꾼다

'혁신 MZ위원회' 운영

여수시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20~30대 MZ세대 직원으로 '혁신 MZ위원회'를 운영한다.

불합리한 관행 없애기, 불필요한 행정사무 줄이기, 일과 삶의 균형, 시책 제안 등 다양한 주제로 소그룹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4팀 20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10팀 50명)할 예정이다.

22일까지 추천과 공개모집을 거쳐 위원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은 간부회의 주요 안건으로 보고되며, 실행 부서를 지정해 추진하는 등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MZ세대의 의식과 감각을 반영해 공감과 소통의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저소득 세대 등유바우처 접수

30일까지…31만원씩 지원

보성군이 저소득층에 등유를 지원하는 '2022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주유소 또는 등유를 취급하는 판매소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실물 카드를 세대당 31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